

『나의 시노달리티¹를 만들자』 Part II

시노드가 지향하는 「길」과 「여관」의 선교

■ 머리말

2021년부터 시작된 제 16 차 세계 시노드는 올해 10 월의 2 번째 총회로 마무리 됩니다. 이번 시노드의 목표는 현대의 교회가 시노달리티(함께 걸어가는 것)를 교회의 본질로서 재발견 하는 것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테마로 친교(communion), 참가(participation), 선교(mission) 이 3 가지 요소를 선정했습니다. 저는 작년의 사목교서 『나의 시노달리티를 만들자』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매일의 삶 안에서 「사람과의 친교」 「사회참가」 「신앙의 증거」에 관하여 성찰하며 시노달리티를 우리 자신의 삶의 기본으로 만들어가도록 권하였습니다.

COVID-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팬데믹은 온세상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중증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자신 혹은 자국의 안전만을 우선 생각하기보다, 가난한 이들에게 손을 뻗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간신히 팬데믹이 종식되어가는 올해, 이번 시노드를 기회로 일본 카톨릭 교회가 시노드 정신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어떤 회개가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 시노드가 지향하는 선교란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인류의 친교와 일치를 위한 도구라고 선언합니다(『교회헌장』 1항 참조). 교회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일방적으로 그리스도교로 만드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시노드적 교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고, 세상과 대화를 하는 자세로 임하고자 합니다. 즉, 하느님께서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역사(役事) 하시지만, 그것이 ‘하느님⇒교회⇒세상’이라는 단순한 흐름이 아닌, ‘하느님⇒세상⇄교회’라는 상호작용의 관계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원죄로 인해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상에 파견하시고, 역사(歷仕)를 통해서 세상과 대화하게 하셨습니다.

¹ ‘Synodalitas’는 하느님의 뜻을 찾는 ‘식별’을 위해 모든 하느님 백성이 친교 안에서 함께 참여하고 경청하며 논의하는 여정의 구조와 정신을 담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는 ‘Synodalitas’를 ‘공동 식별 여정’이라고 번역해왔지만 그 뜻을 완전히 담아 내기에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2021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시노달리타스’라고 쓰기로 정하였다.

따라서, 시노드적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걷기’ 위해서, 세상의 현실에 시선을 두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길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노드에서는 교회의 제도와 조직, 신자들이 참가하는 방식의 변혁을 통해 현대사회가 지닌 교회의 과제를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로 돌아가, 그 시점에서 오늘의 선교의 의미와 방법을 탐구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 대화형의 선교의 이미지 「길」과 「여관」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2020년에 발표한 회칙 『모든 형제들』의 제2장 「길 위의 이방인」은 예수님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루카 10,25-37)를 현대의 시점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에 있는 「길」과 「여관」에 주목하여 선교의 원점을 찾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유다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던 사제와 레위인은 상처 입은 이를 보고도, 「길」의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동포를 구하려하지 않았습니다. 「길」은 냉정한 태도를 취하는 방관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같은 「길」을 여행하던 사마리아인은 쓰러져있는 이를 발견하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비록 그가 유대인일지라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짜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여관의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건내고, 그를 돌보아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행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사람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길」은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예기치 못한 일과 만남의 장소가 되었고, 「여관」은 돌보기 위한 연대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관점에서 보자면, 「길」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을 만나는 장소이며, 「여관」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길」과 「여관」은 사마리아인의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3. 이웃을 한정시키지 않고, 이웃이 되어주기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루카 10,26)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받은 율법 교사는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 싶어서 율법의 요약을 인용하며 “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루카 10,27)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웃이 되어 준 사람’ 이야기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웃이란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자신과 같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하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지만, 하느님께서 미워하시고 버리신 죄인들은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옳바르다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웃이란 누군가를 정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고, ‘이웃은 누구인가’ 라고 정의내리며 ‘이웃을 한정시키는’ 발상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었기에, 그 사람을 버려두어도 상관없었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해주고 편견을 넘어서, 자신이 더럽혀져도 상관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길에서 만난 상대가 적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귀찮은 사람이든, 상대를 고르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4. 시노드적 교회의 모델은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는 「길」은 실제로 가파른 산길을 지나는 위험한 길로, 인적이 드물고 여행하는 이가 강도를 만나는 일이 종종 있는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봉변을 당하면 도움을 청하려해도 아무도 없고, 또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쓰지 않고 지나가 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제와 레위인은 종교적인 불결함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우선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려조차 하지 않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같은 「길」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만 쓰러진 남자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마리아인과 같이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느낀 ‘가엾은 마음’이라는 감정은, 하느님의 깊은 연민을 나타내는 동사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라는 예수님께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느님의 연민을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모든 활동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동시에, 사람들을 향한 한없는 자비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미움받아도, 눈앞의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당신의 안전이나 이익을 걱정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에서 배척받고,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이야기는 구세주 예수님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갈릴레야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치유해주시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는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5.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야전병원

프란치스코 교황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애’와 ‘사회적우정’이라고 불리는 인간관계 전체보다 더 넓은 문맥 속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모든 형제들』 참조).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을 존중하고,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여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야 합니다.

교황은 취임한 초기부터 교회는 사회를 향하여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길을 나섭시다.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건네기 위해 나갑시다. (중략) 저는 간혀있으면서 자기만의 안전에 몰두하는 건강하지 못한 그런 교회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입고 명들고 먼지 묻은 교회를 더 좋아합니다.”(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49항) 전례중심의 지금의 교회의 실정은 세상 속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일상생활과 분리되어 곁돌고 있는 신앙의 껍데기 속에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쾌적한 장소(개인의 생활의 장소)에서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사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이들, 고립된 이들, 착취당하는 이들, 차별과 부정으로 고통받는 이들, 무시당하는 이들에게 시선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황이 사회의 변두리에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호소하는 것은, 그곳이야말로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또한 교회를 야전병원으로 비유합니다. 교회는 자신들의 시설에 꼭 박혀서 관심 있는 분만 와주시라는 자세가 아니라, 고통과 아픔에 직면한 이들을 맞아들여 물질적인 지원과 함께 무엇보다도 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바로 그 「여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은 것일까요? 사제와 레위인처럼 지나쳐 버리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걸으며 다가가는 교회일까요?

6. 배리어(장벽) 프리를 향하는 선교

우리들이 밖으로 나아가는 「길」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은 같은 지역이나 사회에 사는 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나 가치관을 가진 이들도 포함됩니다. 「길」에는 문화나 국적, 사상의 다름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나, 장애나 젠더의 차별이 존재하고, 그것들은 「길」의 평화와 조화를 어지럽히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시노드적 교회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사랑과 공감을 드러냅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이나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의 시점과 감정을 존중해주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노드의 발걸음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시노드적 교회는 분단의 울타리를 넘어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배리어 프리의 사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이기에 서로 경쟁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닌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도우면서 배리어 프리의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본능적으로 몸을 지키기 위해 물리적인 벽과 함께 마음 속의 의식의 벽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깔보고, 괴롭히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공격하고, 쫓아내고, 말살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 주변에는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이는 보행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나 불편함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함으로써, 보다 공평하고 쾌적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배리어는 인간의 존엄과 가능성을 빼앗아 버립니다. 복음적인 눈이란,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에 기반하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서 민감한 것입니다. 복음적인 귀란, 자신의 이익과 쾌적함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과 사회의 변두리에 있는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7. 선교를 향한 열의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가족이 되었고, 견진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부여 받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자신만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선교는 하느님으로부터의 은총이며, 하느님을 향한 봉사이고, 선교에 참가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신앙을 깊게 만들어 줍니다.

일본의 선교는 세례자를 늘리는데 있어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한다는 열의가 있다면, 하느님의 계획의 일부분을 다하는 책임을 가지고 이를 위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하느님께 바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교토교구에서는 전쟁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제와 수도자들이 선교사로서 자국을 떠나 일본에 와서 난해한 일본어를 배우고, 그리스도교 문화가 적은 일본 사회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쳐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와의 만남은 선교의식이 약한 우리들에게 큰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또한,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신자분들은 자국에서 키워온 신앙심을 지켜가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선교사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카톨릭 교회에 있어서도 큰 은총이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일본인 신자들은 외국인 신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신앙표현을 접하고, 카톨릭(보편적인)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생활 속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강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8. 말씀을 듣는 교회란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루카 4,18 참조) 몸소 가난한 이들 가운데에 태어나시어, 가난한 이들과 함께 걸으셨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온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바로 당신에게 해준 태도라고 가르치셨습니다(마태 25 장 참조). 복음선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함께 해야 합니다. 약자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를 통해서, 율법 교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느님과 이웃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웃이 되라고 가르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대가 자신이 알고 있는 가르침, 혹은 알고 있는 것을 정말로 진지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계속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하면서 자기변호만 하는 제자리 걸음에 빠져있지는 않은가요? 시노드적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물음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예수님께 충실하게 순종하고 신앙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9. 시노드적 교회와 불안정성

현대 카톨릭 교회는 교회 내부에서 선교를 향한 열의가 결여되거나, 성직자에 대한 신뢰상실이라는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교회가 관여한 성적학대나 권력이나 금전에 얽힌 스캔들은 교회의 윤리적 권위와 사회적 역할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정의를 실현할 것을 약속하며 보다 포괄적이고 관용의 자세를 드러냄으로서 신자들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시노드적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이 함께 하느님의 뜻을 겸허히 탐구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책임을 지며,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동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시노드적 교회는 구성원의 부족한 부분과 나약함을 받아들이고,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정성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유하는 장소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대화와 상호이해를 중시 합니다. 교회 밖의 세상을 향해서도 열린 자세를 드러내야 합니다. 저는 매일,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며, 서로의 경의를 표하며, 나와 다른 이의 인생에 있어서 하느님의 영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노력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사목자로서도, 회심과 개혁의 자세로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0.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루카 1,39).

2023 년 세계 청년 대회 리스본 대회의 테마와 같이, 우리들은 마리아의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고통으로 움직이기 힘든 엘리사벳의 곁으로 서둘러 향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노드적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들도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바라며, 하나님의 계획에 참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라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달성해 나아가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은총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의무가 있습니다.

시노드적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현대에 전해 주어야 할 긴급성을 이해하며, 서둘러 여정을 떠나야 할 때입니다. 시노드적 교회는 「길」과 「여관」을 둘 다 소중히 하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길 바라며 활동합니다. 「길」이란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의 관계성,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신앙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관」이란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대나 사회계급, 민족이나 그 밖의 그룹의 벽을 넘어서, 나와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만남을 추구하며, 다양한 종교에 속해있는 이들과 우리들의 신앙의 은총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함으로써, 세상의 일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2024 년 1 월 1 일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바로로 오오츠카 요시나오